

지자체 실업팀 육성 시스템, 올림픽 메달 꿈 키운다

광주·전남 선수들, 파리 올림픽서 대한민국 메달 32개 중 8개 획득 화순군청 복싱·배드민턴, 순천시청 양궁 등 유망 종목 선택과 집중 효과

광주·전남 태극전사들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맹활약한 배경에는 지역 자치단체 실업팀과 육성 시스템이 있었다.

광주·전남 소속 및 출신 선수 7명은 대한민국 선수단이 획득한 총 메달 32개 가운데 무려 8개(25%)를 따내는 등 대한민국 역대 최고 성적에 기여했다.

19일 광주·전남 지자체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에서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동메달),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 금), 배드민턴 정나은(화순군청, 은), 양궁 남수현(순천시청, 금·은), 펜싱 최세민(전남도청, 은), 유도 이혜경(광주교통

공사, 등)이 메달을 수확했다.

이들 중 4명은 현재 지자체 팀 소속이며, 4명 중 2명은 고향 실업팀에서 뛰고 있어, 올림픽에서 고국 뿐만 아니라 고향의 명예까지 드높이는 영웅으로 탄생했다.

이들이 맹활약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은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광주·전남 지자체는 집중 육성 종목을 골라 초·중·고·실업팀에 이르는 선수 연계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성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실업팀을 보유하고서도 올림픽에서 광주·전남 체육

의 저력을 입증했다.

전남도체육회의 '2024년 시도별 실업팀(직장은 동경기부)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14개 종목에 15개팀, 전남은 21개 종목에 42개팀으로 17개 시·군에서 각각 16위와 10위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남지역 시·군 지자체들은 연계 육성과 실업팀 집중 지원으로 승부를 걸었다.

대표적으로 화순군은 현재 육성하고 있는 복싱과 배드민턴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했다. 임애지는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올림픽 첫 메달, 배드민턴 정나은은 혼합복식 16년 만에 결승 진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선수 연계 시스템도 돋보인다. 복싱은 화순중과 전남기술과학고에서 육성하고, 배드민턴은 화순만연초·화순제일중·화순고 등 초·중·고 6개교에서 팀

을 키우고 있다.

화순은 배드민턴·복싱 전용경기장으로 하니움문 화스스포츠센터와 이용배체육관까지 갖추고 있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공을 들여 타 지역 팀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화순은 명실상부한 배드민턴 메카로서,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는 퇴임한 김중수·정명희 전 감독의 지도 아래 이용대를 비롯한 총 15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복싱팀도 군의 넉넉한 지원과 박구·박지선 감독의 열정적인 지도에 힘입어 전국 최강의 기량을 갖추고 있다.

순천시청의 양궁도 남수현의 단채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 획득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수현은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첫 올림픽 무대에 데뷔해 두 개의 메달을 거머쥐는 진기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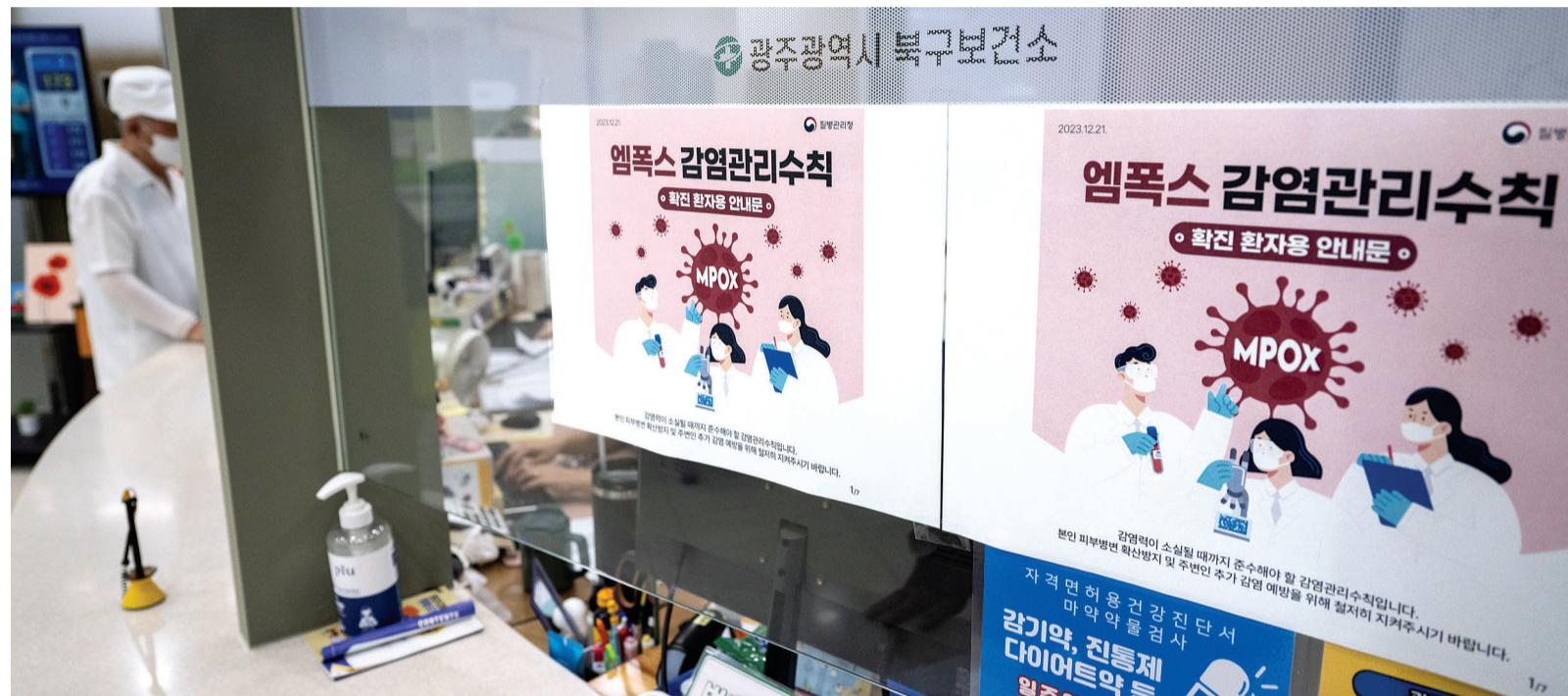
세우기도 했다. 순천시청 양궁팀은 1997년 창단부터 입동일 감독이 팀을 맡아 현재까지 외부 선수 영입 없이 전남 출신 선수들로 팀을 유지해오고 있다.

시청의 장비와 훈련비에 대한 지원도 부족함 없이 이뤄지고 있어 팀 전력 향상에 활력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사격의 장성군과 펜싱의 전남도청도 지도자와 선수들의 열정으로 국내 최고팀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전남 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선수 연계 육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조만간 전남체육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엔데믹 얼마나 됐다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이 보건소 민원실에 감염병 관리 수칙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부착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에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엠포스(MPOX·원숭이두창바이러스)에 대해 국제 공중 보건 위기상황(PHEIC)을 선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주민설명회

22일~30일 등 행정복지센터...착공 시기·교통 대책 등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착공에 앞서 2단계 공사 구간 일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착공 시기와 교통 처리 대책 등을 홍보한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운남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2일 운남동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3일 오치2동·매곡동행정복지센터, 26일 광주센트럴병원, 27일 일곡동·양산동행정복지센터, 28일 삼각동·침단2동행정복지센터, 30일 신용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공사 구간 관계자 주관으로 열리는 설명회에

서는 2단계 건설공사의 개요, 구간별 공사 시기,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교통 처리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는 광주역에서 전남대를 거쳐 일곡·침단·수원·운남지구 등 북부지역 20.046km 구간에 18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2단계 건설 공사는 이달 교통 처리 계획, 지장물 이설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다음달부터 6개 공구 지장물 확인 등을 위한 도로 굴착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재식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설명회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과정에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작

123명 24시간 그룹 유형별 1대1 서비스...읍면동서 신청

전남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22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 사각 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전남지역 발달장애인은 1만 4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가족이 돌보아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전남도는 총 66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 정도와 서비스 지원 필요도에 따라 총 123명에게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개별 1대1 서비스(20명) ▲낮 활동 서비스인 주간 개별 1대1 서비스(28명) ▲주간 그룹형 1대1 서비스(75명), 3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심각한 제약이 있어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다. 서비스 신청

은 읍면동에 하면 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8월 첫 주 기준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 38명 중 우선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과 7월 2차례 서비스심의위원회를 개최, 24시간 개별 4명, 주간 개별 4명, 주간 그룹형 6명, 총 14명의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낮 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동·서부권 각 1개소를 지정, 8월 중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 개보수 중이다.

낮 활동 서비스인 주간 개별과 그룹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별로 자체 공모 중이며, 일부 시군은 제공기관을 모두 지정해 8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귀어 입문 지원 '전남귀어학교' 운영

10월11일까지 8주간...현장 실습·창업 컨설팅·정책 등

전남귀어학교가 8주간 운영된다.

19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어업(13명), 양식업(8명)에 관심 있는 예비 귀어인으로 구성된 귀어학교가 오는 10월 11일까지 8주간 운영된다. 거주지별로는 서울·경기·경남 등 11명(52%), 전남 6명(29%), 광주 4명(19%)이다.

1~2주차에 귀어 정책과 수산업에 대한 기본 정보, 현장 견학이 이뤄지고, 3~6주차엔 어가 체류형 현장 실습, 7~8주차엔 창업컨설팅, 금융정책, 유통프로그램 등이 무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현장 실습 기간을 당초 2주에서 4주로 연장 운영하고 어촌의 창업분야 정보 제공을 위해 유통·가공과정도 1주 신설한다.

2020년부터 문을 연 전남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이나 희망자 대상으로 귀어정책, 어업이론과 실습, 창업 컨설팅 등 내용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강진에 있는 전남 귀어학교는 올 상반기까지 10기를 운영해 16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71명(44%)이 어촌에 정착,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착률을 자랑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전남 귀어학교가 차별화된 귀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